



‘26년도 주요 공공기관 투자 70조원 (상반기 37.1조원) 집행계획

- 제1차관 주재,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16일(금) 15시,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26개 공공기관들과 ‘25년 투자집행 실적과 금년 집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공공기관 중 투자규모가 큰 26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투자집행 집중 관리

주요 공공기관의 2025년 투자집행액은 총 72.5조원으로 당초 목표인 66.0조원을 6.5조원 상회하여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6년 투자 목표는 전년(66.0조원)보다 4조원 증가한 70.0조원으로 설정하였다(목표기준 역대 최고).

* (목표/실적) ‘23년 63.4/65.6조원, ‘24년 63.5/66.6조원, ‘25년 66.0/72.5조원

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반영하여 25.1조원(전년대비 +3.5조원)을 투자한다. 그 밖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등에 10.9조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과 시설개량 등에 6.8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계재기와 기업정상화 지원 등에 2.0조원을 투자한다. 재정경제부는 매주 투자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집행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투자는 필수 공공서비스의 적기 공급과 함께, 경제성장의 효과를 지역경제에까지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공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집행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각별히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 직전, 이 차관은 2025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우수기관(8개)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모든 공공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부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민호 (044-215-5630)
		담당자	사무관 이숙경 (lskyung@korea.kr)

